

평생교육시대, 불교계 '무감각'

종교 평생교육원 설립법 추진... 기독교 압도적 우세 예상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역시 평생교육법을 제정해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유도하고 있고, 종교단체까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불교계도 변화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의 '도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강좌. 급증하고 있는 평생교육 수요에 맞춰 불교계도 특화된 교육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평생교육법의 가장 큰 문제는 종교단체를 설립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존 종교단체는 산하 학교나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을 주체로 해 우회적으로 평생교육을 설치해 왔다. 하지만 평생교육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종교단체에 교육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높아졌다.

상당수 교회 우회 운영해
사찰 평생교육원은 2곳뿐

조계사 '마인드케어'가 모델
특화 교육, 전문가 양성 시급

이제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7월 12일 주최한 '종교단체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재선 변호사는 "종교단체 시설 이용에 대한 제도마련 및 허가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안을 구성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면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성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상 종교단체에도 평생교육시설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 의원 측은 평생교육법 및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광림, 만나, 새문안, 소망, 여의도순복음, 은누리, 사랑의 교회 등 대형 교회들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평생교육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랑의 교회의 '포에버 평생교육원'은 영어, 일어, 웰빙체조, 스포츠댄스, 한글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교회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면 1천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함께 평생교육 정책과 개신교의 상관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상당 수준 이뤄진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당장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이 전문한 실정이다. 동국대와 위덕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 불교종립대학 정도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순수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재 조계사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유일하다.

이태호 조계사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 총괄기획이사는 "평생교육원은 불자들의 재교육을 넘어 불교의 사회적 회화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며 "불교계도 시대적 요구인 '평생교육'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평생교육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전반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고 후발 주자이기 하지만 불교계 평생교육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간혹, 문화재, 자연환경 등 불교가 선점하고 있는 하드웨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계사가 6월 개원

한 마인드케어 평생교육원은 불교계 평생교육원의 토포모델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도시마을공동체 만들기 특강만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마인드케어 코스, 교육지도사 코스, 스페셜 강좌 등으로 강좌를 넓힐 계획이다. 마인드케어 코스는 청소년 마음건강캠프, CEO 자유행복 캠프, 가족 행복 캠프 등 계층과 주제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교육지도사 코스는 청소년 심리상담사, 스트레스 관리자, 창의활동지도사 등 교육·케어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또, 인문학 교실, 바리스타 과정, 호스피스 강좌 등 사회적 교육들도 특별 강좌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획이사는 "최근 평생교육도 현대인의 마음 치유, 스트레스 줄이기 등 정신건강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불교에는 '선'이라고 하는 최고의 마음 수행법이 있다. 사찰 평생교육원은 현대인의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공 교육기관만큼 종교색을 덜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 "불교계 평생교육원은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으로 앞서 가야 한다"며 "멘탈 생산성"을 바탕으로 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 기존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학교폭력예방 근절한다

구미 도리사, 교과부 우수 사례 공모 당선

템플스테이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사례로 첫 공식 인정됐다.

구미 도리사(주지 범승)는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제1회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우수 사례·정책제안 공모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7월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 우수사례로는 학교

30개교, 일반단체 10곳이 선정됐으며, 종교단체 유일하게 구미 도리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도리사는 교과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고, 학교폭력 우수사례집 책자에도 수록된다.

도리사의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의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가 모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데 있다. 지난 3월 처음 시작한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매일 첫째, 셋째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8회 참가자 총 16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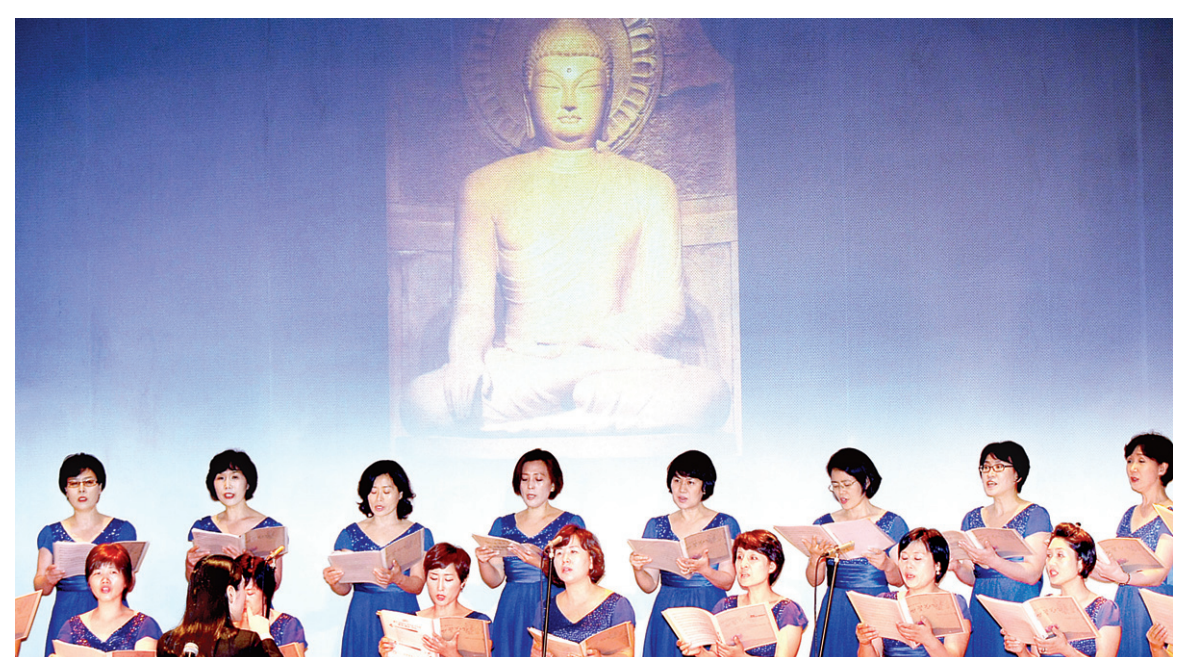
프로그램 역시 심리치료부터 명상, 108배 등 불교 수행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단순하게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참가자들의 변화를 보고 꾸준히 바꾼 것도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같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들은 당장 호응을 불러왔다.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현재 교육청과 각급 학교와 연계하는 정기적 프로그램으로 정착됐다. 인근 지역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해 템플스테이에 참가시키고 있다.

도리사 템플스테이 연수국 포교국장 인범스님은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라는 외부 낙인은 이런 긍정적 변화의지를 막고 있었다"며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는 긍정적인 참 자아를 찾아내고 인내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프로그램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종일 기자



한여름밤의 찬불가

종은벚꽃경소리(회장 덕신)는 7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2012 불타 콘서트 '7월 한 여름밤 노래 한 바탕'을 개최했다. 찬불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콘서트는 12월까지 매월 무료로 개최된다.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콘서트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원적정사 니르바나 합창단, 조계종 중무연 통기타 동아리 칼립스, 성악가 김재일, LMB싱어즈 등이 출연해 20여 곡의 찬불가를 선보였다. 원적정사 니르바나 합창단이 '사랑하는 이여'를 합창하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로회의 종헌 인준안 '부결'

40차 회의서... 선거법 공포 사실상 무산

조계종 쇄신 종헌 개정 인준안이 부결됐다. 조계종 원로회의는(의장 종산) 7월 20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쇄신 종헌 인준에 대해 이 같이 결의했다. 1994년 개혁 이후 4차례 종헌 개정이 있었지만, 원로회의에서 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소임에 대한 자격을 법제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원로회의는 이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종헌의 인준이 부결됨에 따라 쇄신 입법으로 불렸던 선거법 공포는 사실상 무산됐다. 선거법에서

종회의원 출마 자격을 법남 15년에서 20년으로 개정해 법제부문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로회의의 부결에 총무원과 중앙총회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앙총회의원 스님은 "쟁점 사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부결됐다. 개혁입법 중 하나인 선거법이 공포가 어려워졌다"며 "9월 중앙총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로회의는 종단의 최고의 결기구로 종정 추대를 비롯해 종헌 개정안 인준, 총무원장 인준 등의 권한을 갖는다.

신종일 기자

교사직무연수 : 경기교육 2012-0129

교사직무연수 모집
"인성교육을 위한 셀프 리더십 과정"

교실의 행복

NAVER 교실의행복

모집대상 | 전국 유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종사자 전체
교육일정 | 2012년 8월 6일~8월 10일(금) (09:00~16:00, 5일간 - 총 30시간/학점 인정)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간 | 2012년 7월 30일(금) 수강료 | 7만원
신청방법 | 네이버블로그 "교실의행복" / www.hansi.org / hansi@hanmaum.org 로 신청 가능
문의 | (재) 한미음선원 한미음과대학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한미음선원
한미음과대학
한미음교육원

898호 INDEX	
종단 조계종 통합종단 50주년 세미나	2
종합 대불련 50주년 진단 10·27 법안 피해자회 기자회견	3
시방세계 경봉선사 열반 30주기 다례제	5
신행 대학생 해외봉사 인기	6
캠페인 절마당이 주차장인가?	11
새연재 유정길의 생태사회와 불교	13
부처님 10대 제자에게 배운다 ② 신봉제일 목건련 - (8)귀의	14

종교계의 지각변동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이대성 교수

저술에 가 있는 독일의 자연과학자 '뒤 부아레몽' (1818-1896)이 벌떡 일어날 일이다. 불가지론자인 프로타고라스, 인간인식의 한계를 주장한 칸트(1724-1804)도 데이비드 흄(1711-1776)도 모두 저술에서 곧 달려올 것이다.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기원, 영체론과 불타의 삼신론, 불타의 구원론, 천도제의 필요성 등등, 인간의 영원한 삶과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세기의 명저인 '21세기 불타의 메시지'에 들어 있다.

개정판

21세기 불타의 메시지 II

과학기에 탄생한 가시 정령론-이러 과학의정령론 두 불타가 출현하여 인도하는 메시지

권·영광·연·4대·연

www.hyonjisa.com

불교서적 베스트 셀러

세계 종교계를 뒤흔들 화제의 양심서

21세기 불타의 메시지 I, II

역사의 제단위에 올려놓는 수행인의 양심서.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지옥, 천상, 극락세계가 실제로 있는 데도 수 많은 불자들이 앞에서 이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 천상, 극락뿐 아니라 중생 세계도 엄연히 있습니다. 짐작이 강한 사람이 지중천 연으로 큰 병을 얻어 죽거나, 행사 또는 자살로 죽으면 고훈으로 중천을 떠도는 영적 세계도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대보살이나 불과를 이룬 대성자는 이 육도 세계 안의 일이나 윤회를 벗어난 해탈세계를 모두 봅니다. 다만, 이러한 큰스님이 나오지 않고 일갈하지 않아서 지금의 한국불교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불타의 메시지 I / 423쪽 / 정가 18,000원

부처님을 본다 / 무량광 / 견성은 공부의 시작 / 도를 망언에 대한 일갈 / 윤회전생 / 윤회를 넘어 / 불(佛)의 상신을 말한다 / 계율 / 어떻게 살아야 하나 / 불교, 그 위대함 / 독자분들의 질문에 답한다 / 상에 / 청명연불 / 소·대승 불교경전 / 신통 / 지옥 / 공안 / 부처님께 공경드릴 수 있다면 천마 / 선공공의 보따리 / 불문의 사부중에게 / 영적 스승을 만나라 / 가섭존자

21세기 불타의 메시지 II / 453쪽 / 정가 18,000원

불타의 생애 / 영산불교 천지공 현자사 / 석가모니부처님, 우리 교주 불세존 / 불신론 / 무아 속 절대계 / 이제는 타락 불교다 / 지연 연기 / (회암경) 변화경은 범법설이 아니다 / 왜 영산불교인가? / 용신, 인바인신 /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 윤회의 주체-인간 영혼의 실제 / 중생의 영정 / 무아사상 / 중생의 악행과 부처님 계율 / 염불이 정법이다 / 대적관전, 다보탑, 석가탑 / 세상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 부처님의 정법을 따르면 열반에 이르고 / 나라가 잘 살고 가정은 평안하기를

지은이 - 광명 만덕 · 지재 만현 춘천분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번지 - T.033-243-1795, 243-1787 Homepage - http://hyonjisa.com

부산분원 - T.051-554-5150 대전분원 - T.042-525-5325 고성분원 - T.033-681-5515 서울분원 - T.02-453-5953 대구교편원 - T.053-654-5557

불서출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